□ 일하며 생각하며

우리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金 自 浩/건축연구소 間·三

서 론

요즈음 뜸해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매스컴의 화제촛점은 가수 조아무개군의 결혼식 소동이었다.

지난 해부터 각 신문·주간지·잡지·TV·방송 등은 심심해서인지, 아니면 화제가 없어서 그런지 조아무개군의 약혼이 사실이다, 아니다, 결혼한다, 안한다, 일년 더 연장한다, 그대로 강행할 것이다, 신랑이 참석 안해도 좋다, 우리는 면사포를 쓰고 나갈 것이다라는 드릴만점의 추적 보도가 심심치 않게 있은 뒤에는 극적으로 일년 더 연기할 것에 합의했다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며칠 뒤에는 결혼신고가 되었다는 주민등록 등본의 사진이 기재되더니 마침내는 도둑결혼까지 거행하는 것으로 길고도 긴 씨리즈의 막은 내리고 말았다.

항간에는 이 도둑결혼에 대해서 부도덕이다, 뭐다, 말이 많더니 마침내는 이중인격자라는 극단적인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그의 인기가 드디어 하락하고 말았다는 기사가 마치 증권시세의 폭락을 보도하듯 후일담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어쨌든 그가 한시대를 풍미하는 가수이므로 그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만큼 매스컴의 바람에 포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대중가요의 우상인 조아무개군의 사생활을 여기서 새삼스럽게 운위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그의 길고도 긴 줄다리기식의 결혼논쟁이 다름 아닌 그의 「인기관리」 때문이었다는 묵과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더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관리(Management)의 時代

한 가수의 명성과 빛나는 영광 뒤에는 그를 관리하고 선전하고 홍보하며 일사불란한 팀웍으로 일정을 짜고 운영하는 보이지 않는 조직이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오직 그들 조직의 핵인 한 가수의 이미지와 세련된 용모와 보다 확산된 인기를 위해 머리를 짜고 움직이고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헤어스타일에서 부터 복장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쓰고 사생활을 간섭하며 끊임없이 자신들의 주인공을 뉴스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화제거리를 만들어 일종의 기사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다.

언제인가 기억이 잘 안나지만 영동의 대포집에서 어울려 한 잔의 술을 하다보니 과거에 유명했던 섹스폰주자 길아무개씨와 자리를 같이 한 적이 있었다. 이때의 화제 중에 건축설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묻길래 이야기해 주었더니 자기네들의 작곡하는 과정 역시 비슷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아마도 모든 전문적인 직업(Profession)인들이라면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추구하는 과정이란 건축세계 뿐만이 아니고 Pro字가 붙는 운동선수·음악인·작가·정치가 등 전문적으로 금전을 받고 일을 해주는 직업인은, 가수와 비교하여 안되었지만 거의 모두가 공통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같다.

벌써 유행한지 오래된 말이되어 이제는 낡은 구태어가 되었지만, 한때 「현대는 자기PR시대」란 말이 유행된 적이 있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양보하고, 앞장 서 말하기보다는 물러서서 침묵하는 겸손만이 미덕이었던 옛 사고방식에서 어떻게든 극렬한 생존경쟁에서 살아 남으려면 보다 능동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고 어떻게든 남의 눈에 띄게 하려고 스스로 선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대문명사회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한 유행어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능동적인 사람, 부정적이기 보다는 먼저 행동하는 사람, 햄릿형 보다는 돈·키호테의 인간, 그런 사람들이 더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문명사회는 필연적으로 눈부신 Management, 즉 「관리」의 테크닉이 최첨단의 두뇌사업으로 각광 받는 그런 시대를 예고하는 것같다.

우리는 잘하고 있는가

서양건축이 우리나라에 받아들여진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선배님들이 쌓아올린 수많은 업적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만 그동안 몇번에 걸친 전쟁과 일제침략 등으로 인하여 피압박 민족이란 오명을 받게된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만은 틀림없다. 여기에서 나는 과거 선배님들의 업적이나 역사를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다만 현재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과연 이렇게 하여야만 되는지에 대하여 몇자 적어볼까 한다. 그 중에서도 건축사 자신들이 작품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빼 놓을 수 없는 설계감리 용역보수에 대하여 나 자신 나름대로 경험하고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고 싶다.

어떤 지면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 설계비를 깎이지 않으려고 버틸 줄도 알게된 지금에 이르러서는 어차피 속물적인 전문가의 지경에 나도 빠져들고 마는구나… 라는 이 문구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본다. 설계비란 건축사가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준 훌륭한 댓가이므로 깎여서도 안되고 이것이야말로 자랑스러운 값어치가 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것은 속물이 된다기 보다는 당연하고 떳떳

한 것이 아니겠는가. 가까운 일본의 예를 들어 보자. 1978년말 모잡지사에서 설계료에 대하여 전문 건축사 4,500人을 대상으로 20대에서 50대까지 조사한 몇가지의 앙케이트를 소개하면

① 설계감리보수를 의식하게 된 것은 언제부터인가?

20세대전반 : 14.5%
20세대후반 : 43.3%
30세대전반 : 19.8%
30세대후반 : 12.1%
40세대전반 : 3.9%
40세대후반 : 3.0%
50세대이후 : 2.3%
의식한적없다 : 0.6%
불명무답 : 0.5%

② 설계감리료의 현재기준에 대하여 Case에 따라 틀리지만 현재 설계감리료는 업무의 댓가로서 비싸다고 아니면 싸다고 생각합니까?

83.7% 싸다고 생각함
3.3% 비싸다고 생각함
12.5% 적정하다
불명무답 0.5%

③ 설계감리료의 금액에 만족하고 있읍니까, 불만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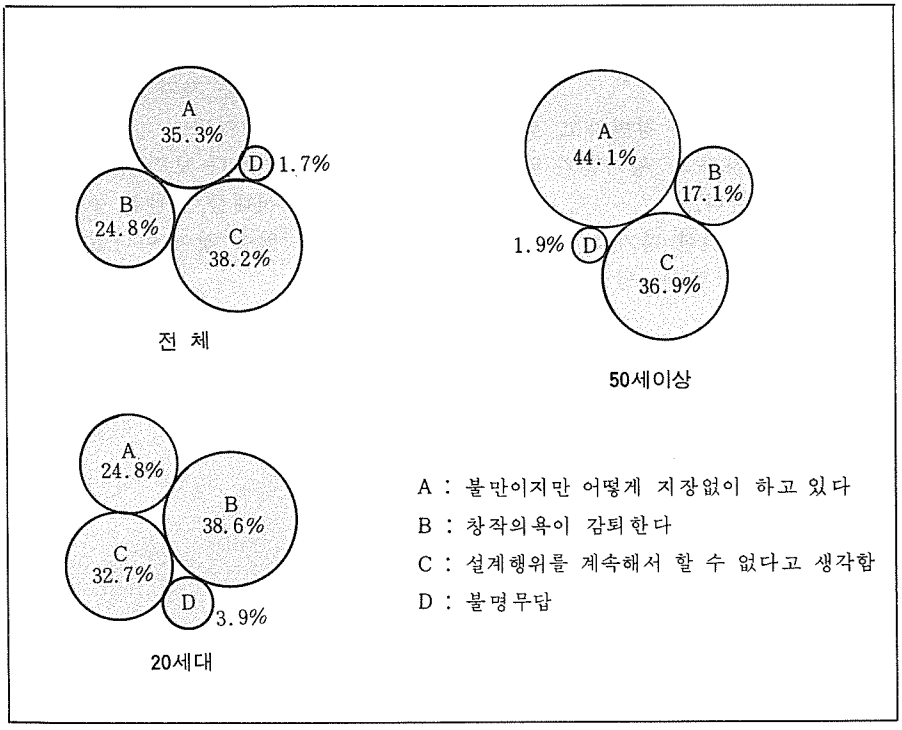
C : 감리를 적당히 한다. 16.3%
D : 건축주와 콤뮤니케이숀이 없어진다. 11.9%
불명무답 3.6%

⑤ 설계감리료의 금액이 불만일 때 어떠한 자세를 택합니까?

A : 설계일을 거절한다. 4.2%
B : 설득하여 금액을 올려받도록 노력한다. 23.1%
C : 불만이지만 타협하여 일을 하고 전력을 다한다. 50.5%
D : 일의 질이 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도 타협하여 일을 맡는다. 16.6%
불명무답 5.6%

⑤ 현재설계감리료가 적정하지 않다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A : 설계감리업무에 대한 건축주의 평가인식이 낮다. 63.7%
B : 설계자가 너무 많아 과다경쟁이 되어 있다. 29.1%
C : 의사나 변호사에 비하여 상대의 생활이나 사업의 뒷면까지 깊이 알아 가볍게 보수를 청구하기 힘든 설계자의 특수한 입장.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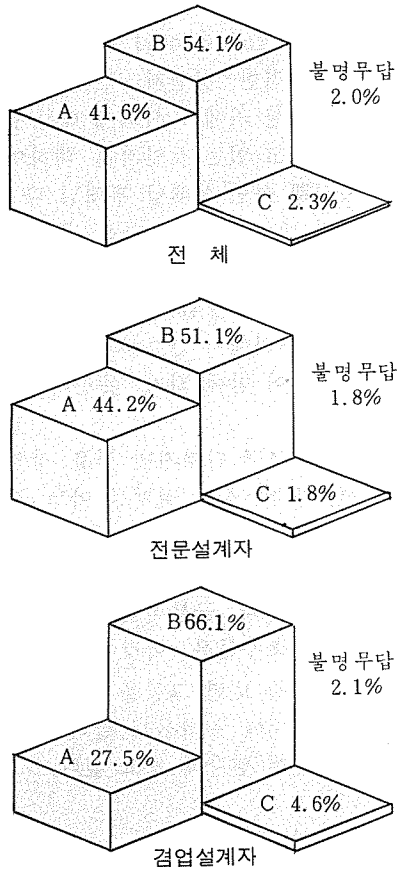


④ 설계감리료가 낮을 경우 어디에 영향이 온다고 생각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 한가지를 선택하십시요.

A : 설계자의 인건비나 생활에 압박이 온다. 55.1%
B : 설계도가 조잡해진다. 13.1%
D : 설계감리료에 관하여 설계자측의 진지한 태도가 모자란다. 22.8%
E : 기 타 6.3%

⑦ 설계감리료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A : 종래 관계단체의 보수 기준대로 한다.
B : 종래의 각단체의 기준은 필요없고 새로운 산정방식이 필요.
C : 산정방식 등은 필요없다.



이 앙케이트는 ㉑번까지 계속되지만 여기에서는 전부 소개를 생략한다. 새로운 설계비 보수기준을 만들 당시 건축사들에게 조사한 내용으로 알고 있지만 가까운 이웃 일본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7년 전의 당시가 현재의 우리 것에 비교하면 1.5배 이상의 보수기준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 앙케이트를 보고 느낀 몇가지는 우선 90% 이상이 현재의 보수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물론 설계내용이야 우리 것에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는 나겠지만 건축을 하는 행위는 어느 나라이고 간에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건축주의 설계에 대한 저평가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더 하면 더 했지 낮을리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 한가지 느낀점 역시 불만스러운 보수일 경우 일에 대한 능률 문제는

우리와 마찬가지 기분인 것같다. 이러한 자료가 우리 것에는 없기에 이웃나라 것을 인용하여 보았지만 실제 우리 건축사에 똑같은 앙케이트를 받아 보았을 때 희망적 답변 보다는 이웃에 비하여 더하면 더 했지 좋은 결과는 못나오리라 생각된다.

우리는 Professional 한 행위를 못하여서 그러한 것인지, 건축사 자신들의 나약한 자세가 사회에 대하여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나 자신뿐 아닌 선배님 후배님 다 같이 한번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느껴진다. 아무리 훌륭하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작품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도 거기에서 만족하는 건축사라면 아마추어 밖에 되지 못한다고 느껴진다.

문제는 조금 다르지만 서울 장안의 우수한 대형건물의 설계를 어느 것이라 지적은 안하겠지만 대부분 외국 설계자가 상륙을 하여 설계를 하였고 피압박 민족의 근본적인 사대주의에 얽매인 건축주들은 이것에 만족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그들을 욕하고 나무라기 이전에 우리들도 잘하고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Pro 가 되자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어떻게든 이 상품이 기존시장을 파고 들어 갈 수 있도록 선전방법과 각종의 디자인·색채·문안이 연구되고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가 반복되어 최면을 보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일단 시장에서 인기상품으로 안정세를 구축하면 그 다음에는 지속적인 구매열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고도의 관리 테크닉이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어느 한 전자 Maker회사의 단면을 바라보며 느낀 점이었지만 이는 어찌 상품뿐이겠는가.

정치가는 물론, 작가·영화배우·가수·코미디언·사업가, 모든 현대인들은 보다 나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 내고 한번 인정 받은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한다. 우리 건축사 역시 달리 행동할 바 하나도 없는 것같다.

코미디언은 자기자신이 저질 웃음만을 남발하는 코미디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케든 대중에게 심어 주려고 Pro적인 이미지를 찾아내고, 작가는 자신이 아픈 시대의 고통받는 사람을 대변하는 지성인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 하여 자신의 Pro로의 이미지를 찾으려 하고, 권투선수 역시 자신의 화이팅 Money를 위하여 또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무수한 스파링과 땀을 흘리고 있다.

정치가는 자신이 청빈하고 정직한 민중의 대변자라고 평가받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다.

예전에는 그러한 평가를, 주위에서 남들이 먼 후일 혹은 당사자가 죽은 이후에 내려주던 것을 현재는 그러한 평가를 살아 있는 당대에 받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소문을 퍼뜨리고 기사거리를 제공하고 화제를 만들며 필사적인 Pro의 경지를 유지하려 한다.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만이……

작가가 세월을 초월하여 위대한 작가로 남기 위한 최고의 관리 방법은 오직 좋은 작품을 쓰는 것이며 사업가는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 일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고도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같다.

우리 자신들이 정당하고 응분의 설계감리용역의 보수를 요구하기 이전에 최고 최대의 방안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좋은 작품을 끊임없이 만들어야만 되는 것같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조아무개 가수도 여러가지 관리보다는 좋은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라면 결혼쯤이야 하면 어떻고 인기가 떨어진들 어떠랴.

어떻게든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야말로 피와 땀과 극기를 요구한다. 이 노력에 매어 달릴 때 비로소 남의 눈치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장 무서운 적은 자기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될 것이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우리들은 소원하는대로 시대를 초월한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한발양보 거리질서 한발빠른 선진조국